

일치와 이동*

박 승 혁
(이화여자대학교)

Park, Sung-Hyuk. 2001. **Agree and Mov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4, 561-585. It has been claimed recently that the two computational operations Move and Agree of Chomsky (2000, 2001a) should be separated into distinct and independent operations. According to this view, Move is an “operation that applies only to meet an EPP-feature of a functional category.” It is also claimed under that analysis that “a candidate for Move is simply a syntactic object with phonetic content.” The purpose of this short paper is to show that the operation Move should still be viewed as composite; hence it must have the operation Agree as one of its prerequisites. We argue that the EPP feature of T may not be analyzed as an independent feature that triggers overt displacement in syntax. Under Chomsky’s (2000, 2001a) theory, displacement in syntax must require the probe-goal (P, G) association before the actual movement takes place. It is shown in this paper that in order for an element β to raise to the [Spec, T] position, the φ -features of T must establish a (P, G) relation with those of β prior to movement. In short, Move requires Agree, the EPP feature being dependent on the minimal φ -feature [person] of nominals.

1. 서론

Chomsky(2000, 2001a, b)는 전치(轉置 displacement) 현상과 관련하여 Chomsky(1995)의 자질 유인(Attract-F) 이론을 버리고 일치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통사론 강의-세미나(1999년, 2000년 및 2001년 2학기)에서 논의된 것이다. 강의-세미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아울러 귀중한 논평을 보내주신 세 분의 《영어학》 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논문의 체제 정리에 도움을 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이수진씨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본고에 나타나는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Agree)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치를 위해 적용되는 이동(Move) 작용은 일치, 동반(同伴 Pied-piping) 및 (재)병합(Merge)의 복합 작용으로 이 작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치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Chomsky의 일치 이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여 이동과 일치는 별개의 독자적인 작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분리론에서도 Chomsky(2000)의 최소주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리론의 주장은 Chomsky의 이론에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동과 일치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해 전치를 유발하는 T의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 효과를 별개의 독립적 작용으로 보려는 시도는 적어도 Chomsky의 이론적 틀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본고의 목표는, Chomsky의 이론적 틀을 가정한다면 분리론의 주장과는 달리 전치는 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EPP 효과를 독립된 별개의 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과 결국은 일치와 이동이 각각 독자적인 작용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¹⁾

2. 분리론의 주장

먼저 분리론자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²⁾ 본고의 관심

¹한 논평자는 본고의 제목을 “이동에서의 일치와 EPP”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본고의 목적에 대해 다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분리론 자체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분리론도 Chomsky(2000, 2001a)의 이론적 틀 속에서 주장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논리적 타당성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둘째, Chomsky(2000, 2001a)의 이론적 틀을 가정했을 때 이동은 곧 EPP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논의에는 EPP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고는 EPP 자체의 (이론 중립적인) 본질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본고의 목적은, EPP에 대한 Chomsky(2000, 2001a)의 가정을 받아들이는 한 이동과 일치를 별개의 독자적인 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논평자의 제안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래의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²분리론을 주장한 논문으로는 Lee(1999a, b, 2001)를 들 수 있다. Lee의 세 편의 논문에 나타나는 이동과 일치에 관한 주장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표적으로 Lee(1999a)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사항과 관련된 분리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524).

- (1) a: Move and Agree should be analyzed as independent syntactic operations.
 b. Move applies only to meet an EPP-feature of a relevant functional category.

(1a)의 주장을 위해 제시된 대표적인 자료중의 하나가 표현 (2)의 도출이다.

- (2) There seems [TP *t* to be someone in the backyard]

이동 작용과 일치 작용은 별개의 것이라는 분리론의 근거는 간단 명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2)를 도출함에 있어서 상위절 TP의 핵 T의 비해석성 자질들이 제거되기 위해서 일치는 *someone*의 자질과 하는 반면 [Spec, T]로 전치하는 요소는 *someone*이 아니라 *there*이므로 결국 일치와 이동은 별개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사 *there*가 하위절 TP의 명시 요소(specifier: Spec) 위치에서 상위절 TP의 명시 요소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일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므로 이동이 일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1b)는 사실상 (1a)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장인데 외현적(overt) 이동의 유발자가 EPP 자질이라고 가정하는 점에서는 Chomsky(1995, 2000, 2001a, b)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이 일치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봄으로써 EPP 자질을 다른 자질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자질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EPP 자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535).

- (3) ... an EPP-feature of a functional category should be

앞에서 밝혔듯이 본고는 분리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분리론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피하기로 한다. 본문에 나타나는 괄호 안의 숫자는 Lee(1999a)의 쪽 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analyzed as an uninterpretable c-selectional feature for its specifier.

T의 EPP 자질이 그 명시 요소 위치에 어떤 범주 β 를 요구하는 일종의 선택 자질(selectional feature)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Chomsky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EPP 자질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리론은 (3)에 나타나는 “c-selectional feature”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그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535).

- (4) a. Move is a syntactic operation that applies only to meet an EPP-feature of a functional category.
 b. A candidate for Move is simply a syntactic object with “phonetic content.”

즉 이동 작용은 일치 작용과는 상관없이 오직 (특정 기능 범주의)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작용일 뿐이며 이동 작용의 대상은 “음성적 내용을 가진 통사적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³⁾

결국 분리론의 주장은 ‘이동은 일치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별도의 작용이며 이동 작용의 유발자는 EPP 자질이고 EPP 자질은 음성적 내용을 가진 요소를 명시 요소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자질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분리론에서는 이동이 일치와는 상관없으며 EPP의 성질은 음성적 내용만 가지면 어떤 요소든지 명시 요소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위해 위의 (2)의 표현 외에 Collins(1997)에서 거론된 다음과 같은 처소구 도치(locative inversion)와 인용구 도치(quotative inversion)를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 (5) a. Down the hill rolled John (Locative inversion)

³여기서 “a syntactic object with phonetic content”가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통사적 작용이 “음성적 내용”(즉 음성/음운 자질)을 볼(see)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b. "I am so happy," thought Mary (Quotative inversion)

(5)의 자료에서 처소구 *down the hill*과 인용구 "I am so happy"가 T의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TP의 명시 요소 위치로 이동한다는 Collins(1997)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EPP 자질의 충족을 위한 이동은 파이 자질(φ -features)의 일치(agreement)나 격(Case)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

이러한 주장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연구해 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주장 자체가 Chomsky(2000, 2001a)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가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이 사실이다.

⁴한 논평자는 (5)의 자료가 분리론에 더 동조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 진술에서 (5)의 자료 자체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암시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5)의 자료에 근거하여 EPP는 파이 자질과 상관없다고 보는 견해는 본고의 논리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서 (5)의 자료가 실제로 분리론을 확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의심스럽다. (5)의 처소구나 인용구가 과연 주어(즉 [Spec, T])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예를 들어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 (i) a. There was a man in the backyard
b. Was there a man in the backyard?
c. There was a man in the backyard, wasn't there?
d. I believe there to be a man in the backyard
- (ii) a. John rolled down the hill
b. Did John roll down the hill?
c. John rolled down the hill, didn't he?
d. I believe John to have rolled down the hill
- (iii) a. Down the hill rolled John
b. *Did down the hill roll John?
c. *Down the hill rolled John, didn't it/didn't down the hill?
d. *I believe down the hill to have rolled John

일반적으로 (i)의 *there*와 (ii)의 *John*을 주어로 보는 것이 표준적인 가정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iii)의 자료는 도치된 처소구 *down the hill*이 주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Collins(1997)의 분석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박승혁(준비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EPP 효과

이동의 직접적인 유발자로 가정되는 EPP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Chomsky(1981)의 원리 P(principle P)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Chomsky(1981)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 나타나는 허사 *there*나 비인칭 요소 *it*을 증거로 하여 원리 P의 존재를 가정하였다.

- (6) a. *there* is a good reason for his refusal
 b. I believe *there* to be a good reason for his refusal
 c. I believe *it* to have rained

(6)의 표현에 나타나는 *there*나 *it*은 의미역할(θ -role)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의 필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사의 하위범주화 특성에 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절에는 반드시 주어 가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요구는 구조적인(structural) 이유에서 오는 것으로 Chomsky는 이 원리 P를 다음과 같은 구절구조 규칙에 반영하였다.⁵⁾

- (7) $S \rightarrow NP\ INFL\ VP$

Chomsky(1981)의 원리 P는 Chomsky(1982)에서 비로소 확대투사 원리(즉 EPP)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엄격히 말해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에서 사용하는 EPP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⁶⁾ Chomsky(1982)의 정의에 따르면 EPP는 투사원리에 주어 요구 조건을 더한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보통 주어 요구 조

⁵⁾따라서 원리 P는 독자적인 원리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구구조 규칙 (7)에서 도출되는 일종의 정리 또는 계(corollary)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PP의 파생적(derivative) 또는 잉여적(redundant) 특성은 이미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뒤의 논의를 보라.

⁶⁾Chomsky(1982)는 EPP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will henceforth refer to the Projection Principle along with the requirement that clauses have subjects as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투사원리 자체가 사라진 최소주의 이론에서 여전히 EP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단을 가리켜 EPP라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일반적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결국 EPP는 모든 절이 구조적인 주어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7)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그 주어는 NP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7)에 나타난 EPP 특성을 다시 Chomsky(1995) 이후의 기본 절 구조와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8) [TP DP [T' T [_{vP} (EA) [_{v'} v [_{VP} V ...]]]]]

결과적으로 EPP는 (8)의 구조에서 DP/NP를 요구하는 원리인데 이 DP는 *vP*의 외부 논항(EA)이 인상된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입력되는 허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EPP가 과연 독립적인 문법 원리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모듈(module)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일종의 정리(theorem)같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배결속 이론(Chomsky 1981, 1986 등)에서는 대체로 EPP를 격부여(또는 격점검)의 결과로 보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즉 이동 연쇄(chain)의 머리는 격이 부여되는 자리여야 한다는 연쇄조건(chain condition)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격이 부여되지 못하는 위치의 DP는 반드시 격이 부여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동이 바로 EPP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EPP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초기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이동은 비해석성 자질의 제거를 위한 작용이라는 최소주의의 기본 가설 하에서 EPP는 곧 T의 강성(strong) NP-자질(즉 격자질)이라는 주장이 대두된다(Chomsky 1993 및 Chomsky 1995 제3장). 그러나 EPP를 T의 강성 격자질과 동일시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인상(raising) 구문 부정사질의 주어 위치로의 이동을 설명하기 어렵다.⁷⁾

⁷⁾ 별도의 EPP 자질 설정을 부정하고 EPP 효과를 격이론과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Martin(1999)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Epstein/Seely(1999) 등도 EPP 자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EPP 자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Chomsky(2000, 2001a)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 한 분리론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9) John seems [*t* to have been arrested *t*]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Chomsky(1995)는 EPP를 격과 분리하여 T의 강성 범주 자질 [D-]로 규정하였다.⁸⁾ 나아가서 Chomsky(1995)는 시제절의 T는 물론 부정사절의 T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T가 비해석성 EPP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⁹⁾ 따라서 시제절(주격)과 통제 부정사절(공격 null Case)에서는 격자질이 무임승차(*free riding*)에 의해 점검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Chomsky(1995)의 EPP 효과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10) a. The categorial feature [D-] of T

b. The *strength* of the categorial feature [D-] of T

(10a)는 T의 비해석성 (범주) 자질 [D-]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범주 자질 [D]를 가진 어떤 요소가 T로 유인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Chomsky(1995)의 지연성(*Procrastinate*) 원리(경제성의 일종)에 따르면 이 유인은 내현(*covert*) 통사부 LF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다. 그러나 (10b)는 지연성 원리를 무시하고 T의 [D-] 자질 제거를 외현 통사부(즉 음운화 *Spell-out* 전)에서 일어나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T의 [D-]가 강성이기 때문이다.

Chomsky(1995:232-3)는 강성 자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 a. If F is strong, then F is a feature of a nonsubstantive category and F is checked by a categorial feature.

b. A strong feature is one that a derivation “cannot

⁸Chomsky(1993)에서는 이동 작용이 이동하는 요소의 이기성(*Greed*)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Chomsky(1995)의 자질유인 이론에서는 기능범주의 핵이 유인자로서 자신의 비해석성 자질을 제거하기 위한 자살적 이기성(*Suicidal Greed*)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⁹Castillo 외(2000)는 부정사절에는 EPP 자질이 없다고 주장한다. Chomsky(2001a)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T는 EPP 자질을 갖는다는 표준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tolerate”: a derivation $D \rightarrow \Sigma$ is canceled if Σ contains a strong feature.

따라서 강성 자질은 연산 과정에 도입되면서 곧 점검을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T의 강성 [D-] 자질의 제거는 음운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물론 경제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요소의 [D] 자질만 T로 유인되면 되겠지만 음운화 전의 이동에서는 해당 자질만 별도로 이동(유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동반”(generalized pied-piping) 이동을 통해 T의 강성 [D-] 자질의 점검/제거가 이루어진다.¹⁰⁾ 따라서 Chomsky(1995)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요소의 [Spec, T] 위치로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의 종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12) a. T의 [D-] 자질
 b. [D-]의 강성
 c. PF 부분의 특성¹¹⁾

그렇다면 EPP 효과를 유발하는 (12)의 각 요인들은 이동 작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첫째, T의 [D-] 자질은 일종의 선택 자질(selectional feature)로서 이동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대상을 탐색(search)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T의 명시 요소 위치로 이동해 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범주자질 [D]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D] 자질을 갖지 않는 어떤 요소(형용사, 전

¹⁰⁾ 이와 같은 동반 이동의 원인에 대해서 Chomsky(1995:262-3)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 “For the most part — perhaps completely — it is properties of the phonological component that require such pied-piping. Isolated features and other scattered parts of words may not be subject to its rules, in which case the derivation is canceled; or the derivation might proceed to PF with elements that are “unpronounceable,” violating FI. There may be a morphological requirement that features of a single lexical item must be within a single X^0 (see McGinnis 1995). In any event, properties of the phonological component have a major (perhaps the total) effect on determining pied-piping.”

¹¹⁾ 여기서 PF 부분의 특성이라 함은 결국 수행 체계의 하나인 조음-인지 체계(articulatory-perceptual system: A-P)의 특성이라는 뜻이다.

치사, 부사 등)도 EPP의 대상이 될 수 없다.¹²⁾

둘째, Chomsky(1995)가 규정하고 있는 강성 자질의 특성은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자질이 언어 표현의 연산 과정에 들어오는 즉시 점검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T가 갖는 [D-] 자질은 내현부(LF 부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음운화 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질이 강성이라 함은 해당 자질의 점검을 위해 지연성 원리를 무시하고 즉시 적절한 통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어떤 자질의 점검이 음운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해당 자질의 유인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해당 자질만 유인되었을 때에는 PF 규칙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곧 음운화 전에 이루어지는 자질 점검은 자질만의 이동이 아니라 그 자질을 포함한 범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음운화 작용의 적용 전에 이루어지는 자질 점검은 필연적으로 범주 이동(즉 동반 이동)을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T의 강성 [D-] 자질 점검이 음운화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DP의 [Spec, T] 위치로의 이동이 필수적이다.

4. 일치와 이동

Chomsky(2000)는 Chomsky(1995)의 자질 유인 이론을 대폭 수정하여 유인 작용을 폐기하고 일치 작용을 제안한다. Chomsky(2000)에 제시된 주요 변화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³⁾

¹²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이러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 I consider under the bed to be a good place to hide

그러나 Bresnan(1991) 등의 주장에 따르면 *under the bed*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명사구이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ii) a. Under the bed is a good place to hide, isn't it?
b. Under the bed seems to be a good place to hide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i)의 자료와 (5)의 자료는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각주 4를 참조하라.

- (13) a. 유인자와 피유인자 대신에 탐침(probe: P)과 목표(goal: G) 개념의 도입
 b. (자질) 유인 작용 대신에 일치 작용의 도입
 c. 국면(phase: Ph) 개념과 순환적 음운화(cyclic Spell-out) 개념의 도입¹⁴⁾

(13)에 따르면 이제 자질 유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질 연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면 개념의 도입으로 음운화 작용은 매 국면마다 순환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통사 작용이 순환적이며 후순환적(post-cyclic) 작용은 없어지고 단일 순환(single cycle)으로 통일된다. 이러한 순환적 음운화를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LF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으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Chomsky의 일치 이론의 주요 가정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4) a. 시제절과 통제 부정사절의 T는 “완전하다”(complete).
 b. 인상 부정사절과 예외격(ECM) 구문의 T는 “불완전하다”(incomplete).
 c. T가 갖는 비해석성 자질은 파이 자질(φ -features)과 EPP 자질이다.
 d. T의 격은 자질이 아니라 파이 자질이 일치하는 요소의 비해석성 격자질의 값을 정가(定價 valuation)하여 제거하는 T의 격특성(Case properties)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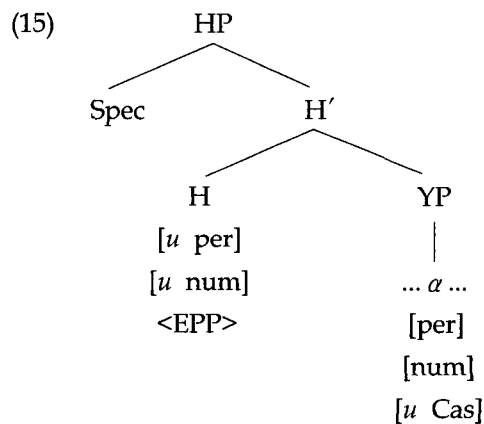
¹³Chomsky(2000)의 이론은 Chomsky(2001a)에서 일부 수정되었으며 후자의 일부 가정들은 Chomsky(2001b)에서 다시 수정된다. 이 이론의 제안 동기에 대해서는 해당 문헌들을 참고하라.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13)에 제시된 변화만을 고려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분리론의 논의는 대체로 Chomsky(2000)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밝혀둔다.

¹⁴Chomsky(2001a)에서는 국면을 다시 강국면(strong phase)과 약국면(weak phase)으로 구분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Chomsky(2001a)를 보라. 본고에서 언급하는 국면은 강국면을 의미한다.

¹⁵Chomsky(2001a, b)는 비해석성 자질을 값이 정해지지 않은(unvalued) 자질로 보고 자질 점검을 자질의 값을 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Frampton/Gutmann(2000)을 참고하라. 격자질을 일치 현상

- e. (적어도 영어의 경우) 완전한 T는 파이 자질(성, 수, 인칭)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격특성을 가지고 있다.
- f. 불완전한 T는 파이 자질 중 인칭([person]) 자질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격특성이 없다.
- g. 비해석성 자질들만 통사적 작용에 가시적(visible)이다.¹⁶
- h. 허사 *there*가 가지고 있는 형식(형태적) 자질은 비해석성 인칭 자질 뿐이다.

(14)의 가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된 일치 이론의 기본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¹⁷



(15)의 구조에서 핵 H는 비해석성 자질인 파이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질들은 사고 체계(systems of thought)에서 해석될 수 없

과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George/Kornfilt(1981)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¹⁶이것을 활성화(activation) 가정이라고 한다.

¹⁷논문의 편의상 (15)의 H를 영어의 완전한 T로 생각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영어의 T에는 성(gender)자질이 표현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u F]는 값이 정해지지 않은 자질(즉 비해석성 자질)을 나타낸다. Chomsky (2000, 2001a)는 EPP 특성을 모든 핵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Chomsky (2001b)는 EPP 개념을 OCC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서는 T의 EPP에 국한하기로 한다. EPP 자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박승혁(2001b)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각주 26을 참조하라.

으므로 통사적 작용을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Chomsky(2001a, 2001b)의 제안에 따라 비해석성의 개념을 값이 매겨지지 않은 (unvalued) 것으로 본다면 H의 파이 자질의 집합(φ -set)은 자신이 탐침 P가 되어 값을 정해줄 목표 G를 찾아야 한다. 물론 탐침의 값을 정해줄 목표는 탐침과 조화(match)해야 한다. 따라서 H의 파이 집합은 특정한 영역(domain) 내에서 자신과 조화하는 목표를 탐색해야 하는데 바로 α 의 파이 집합이 그 목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마침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α 는 비해석성 자질(값이 정해지지 않은 자질)인 구조격(structural Case)을 가지고 있어 목표를 활성화(active)으로 만들어 주므로 탐침의 탐색 작업에 노출된다. 이와 같이 어떤 핵 H의 비해석성 자질 파이 집합과 어떤 요소 α 의 (해석성) 파이 자질 집합이 조화하여 탐침-목표 관계(P-G association)를 형성하면 탐침인 H의 파이 자질들은 정가(定價)되어 사라지고 목표를 활성화시켜 준 α 의 구조격 자질도 H(= T)로부터 격가(Case value)를 부여받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연산적 작용이 바로 일치 작용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치 작용에는 반드시 전치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치 작용의 적용에는 해당 요소들이 꼭 이동할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in situ) 정가와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15)의 경우와 같이 H(= T)가 EPP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Chomsky(2000)는 Chomsky(1995)에서와 마찬가지로 EPP 자질을 핵(H)의 선택 자질로 가정하고 있다.¹⁸⁾ Chomsky(2000)에 나타나는 EPP의 성격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 (16) a. "Each CFC[core functional category] also allows an extra Spec beyond its s-selection: for C, a raised *wh*-phrase; for T, the surface subject; for *v*, the phrase raised by object shift (OS). For T, the property of allowing an extra Spec is the Extended Projection

¹⁸⁾ 물론 명시 요소를 요구하는 이러한 선택 자질은 보충 요소(complement)를 요구하는 선택 자질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Principle (EPP)... EPP-features are uninterpretable (nonsemantic, hence the name), though the configuration they establish has effects for interpretation.” (Chomsky 2000:102)

- b. “... T has uninterpretable features of two types: its φ -set and its selectional feature EPP. Like other selectional features, EPP seeks an XP to merge with the category it heads.” (Chomsky 2000:122)

(16)에 제시된 EPP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EPP는 그 자질을 가진 어떤 핵 H(=T)의 명시 요소(즉 주어)를 요구하는 비해석성 선택 자질이다.

그러나 T의 EPP 자질을 실제로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17) a. 어떤 요소가 EPP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인가?
b. EPP의 충족 시점은 언제인가?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omsky(1995)에서는 EPP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는 DP(또는 NP)이며 그 충족 시점은 음운화 작용이 적용되기 전이다. 한편, Chomsky(2000)의 일치 이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¹⁹⁾ 그러나 (14c, f, h)에 제시된 가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가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8) a. 불완전한 T를 포함하여 모든 T는 EPP 자질을 가지고 있다.
b. 불완전한 T와 허사 *there*는 각각 [person] 자질만 가지고 있다.

(18)의 정리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EPP 자질과 [person](과이 자질 중의 하나) 자질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¹⁹⁾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박승혁(2000)을 참고하라.

게 된다. 즉 T의 EPP 자질의 충족을 위해서는 [person] 자질을 가진 요소를 탐색해야 하며 최소한 이 [person] 자질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야 T의 명시 요소 위치로 병합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Chomsky(2001a:7)의 언급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9) “If P and T_{def} match Subj in the feature [person], then categories with this feature, and only these, can undergo raising (nominals but not adjectivals); on the simplest assumptions, T_{def} had no other φ -features. Expletives too must have the feature [person], since they raise; and pure expletives of the *there*-type should have no other features, on the simplest assumptions. In a framework that dispenses with categorial features, as is reasonable on minimalist grounds, [person] plays the role formerly assigned to D- or N-features.”

결국 T의 [person] 자질이 Chomsky(1995)의 [D-] 자질을 대신하여 목표 G의 탐색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person] 자질 자체가 곧 EPP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치 이론에서는 탐침 P와 목표 G가 조화하여 일치 작용이 적용될 때 반드시 목표 G의 외현적 이동(음운화 전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제자리 일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T의 [person] 자질의 충족에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16)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T는 [person](최소한의 파이 자질) 외에도 반드시 EPP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T의 EPP 자질은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T의 명시 요소를 요구하는 자질이다. T의 EPP 자질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순수 병합(외부 병합)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2병합(내부 병합)에 의한 방법이다. 순수 병합에 의한 방법은 다음의 θ -이론 원리(θ -theoretic principle)에 따라 비논항인 허사에 국한되며(Chomsky 2000:103) 그

외의 경우에는 제2병합(즉 이동)에 의한 방법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20) Pure Merge in θ -position is required of (and restricted to) arguments.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T의 명시 요소 위치에는 최소한 [person] 자질을 가진 요소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시 요소를 요구하는 T의 EPP 자질이 결코 독자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T의 EPP 자질은 T의 [person] 자질에 기생하는 (parasitic)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Chomsky (1995)에서 가정한 자질의 강도(strength)가 별개의 독자적 자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질(예, T의 [D-] 자질)에 붙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²⁰

다음으로 (17b)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16)에서 알 수 있듯이 T의 EPP 자질은 간단히 말해 표층적 주어(surface subject)를 요구하는 자질이므로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동은 반드시 외현적 이동(overt movement)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이동은 음운화 작용이 적용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이동이다. 그런데 왜 EPP는

²⁰여기서 Chomsky(2000)의 EPP 자질이나 Chomsky(1995)의 강도 자질을 “기생적” 자질이라고 한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논평자의 지적대로 Chomsky(1995)의 강도 자질은 “자질의 자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질의 자질이 어떤 성격의 자질이나 하는 것이다. 포함 조건(inclusiveness condition)을 가정한다면 어휘 항목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요소도 통사부의 연산 과정에 들어 올 수 없으므로 강도 자질도 어휘 항목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도 자질의 성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음운 자질, 형식/형태 자질, 의미 자질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 강도 자질은 독자성이 없이 T의 [D-] 자질에 붙어야(기생하여야)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의 자질이다. Chomsky(2000)는 EPP “효과”(기술적 용어)를 EPP “자질”에 의해 설명하려 한다. 여기서 EPP 자질이 하는 일은 사실상 Chomsky(1995)의 강도 자질이 하는 일과 같다. 다만 강도 자질은 [D-]에 붙어서 나타나는 자질인 반면 EPP 자질은 [person] 자질에 붙어서 나타나는 자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EPP 효과를 가져오는 EPP 자질은 Chomsky(1995)의 강도 자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하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박승혁(2001b)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현적 이동(covert movement)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가?²¹⁾ Chomsky (1995)에서는 제3절에서 논의하였듯이 EPP 효과가 (12)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12)에서 알 수 있듯이 Chomsky(1995)에서는 EPP 자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Chomsky(1995)의 EPP는 곧 강성 [D-]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현적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음운화 전의 외현적 범주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질의 강성과 조음-인지 체계(또는 감각운동 체계 sensori-motor systems)의 조건이다.

그러나 Chomsky(1995)가 가정했던 자질 강도의 개념이 폐기된 Chomsky(2000, 2001a, b)의 일치 이론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Chomsky(2001a:15)는 자질의 강성이 가져오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선응성(先應性) 원리와 최대화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²²⁾

(21) Perform comput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22) Maximize matching effects.

이 원리들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하여 Chomsky(2001a:1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3) "... if local (P, G) match and are active, their uninterpretable features must be eliminated at once, as fully as possible; partial elimination of features under

²¹참고로, Chomsky(2001b)에서는 Chomsky(1995, 2000, 2001a)와는 달리 내현적 범주 이동을 인정하고 있다.

²²선응성 원리는 Pesetsky(1989)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선응성 원리와 최대화 원리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면 후자가 전자를 포섭(包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응성 원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순환 조건(cyclicity condition)에서도 나타난다(Chomsky 2000:132).

(i) Properties of the probe/selector α must be satisfied before new elements of the lexical subarray are accessed to drive further operations.

Match, followed by elimination of the residue under more remote Match, is not an option. In particular, if probe P requires Move (i.e., has an EPP-feature), then the operation must be carri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21)과 (22)에 따르면(즉 (23)에 따르면) T의 파이 자질과 격특성이 충족될 때 EPP 자질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음운화 전의 이동을 요구하게 된다.²³⁾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PP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현적 이동 작용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동되는 요소는 최소한 [person]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동하는 요소의 ‘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동하는 요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동반의 정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Chomsky(2000:135)에 의하면 α 를 표적(target)으로 하는 β 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²⁴⁾

- (24) a. A probe P in the label L of α locates the closest matching G in its domain.
- b. A feature G' of the label containing G selects a phrase β as a candidate for “pied-piping.”
- c. β is merged [with α] to a category K.

즉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동 작용은 조화/일치 + 동반 + (내부) 병합의 복합 작용으로 이동 작용의 적용과 함께 해당 요소들의 모든 비해석성 자질들이 정가되어 삭제된다. (24a)는 조화/일치 작용으로 탐침-목표 관계를 형성하여 (탐침의) 비해석성 파이 자질과 (목표의) 비해석성 격자질(T가 완전한 경우)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 조화/일치 작용은 반드시 목

²³우리는 여기서도 EPP 자질의 기생적인 특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²⁴이동은 (24)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 작용 (composite operation)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이 반드시 시간적(temporal) 단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표를 포함하는 요소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EPP 효과를 유발하는 부문은 (24b, c)이다. EPP는 목표 G를 활성화시켜 주는(즉 연산 작용에 보이도록 만드는) 자질 G'(여기서는 구조격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구 β 를 이동의 표적위치로 옮겨 병합에 의해 α 의 명시 요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동하는 구 β 의 크기, 즉 동반 후보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목표 G의 활성화자 G'이라는 것이다. T의 EPP를 충족시키려는 이동의 경우에는 이 G'이 격자질이다. 그런데 격자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반의 크기를 결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²⁵⁾

5. EPP, 일치 그리고 이동의 예

여기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잠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5) a. T는 최소한 [person] 자질과 EPP 자질을 가지고 있다.
b. EPP 자질은 범주 선택 자질이다.²⁶⁾

²⁵격자질에 의해서 동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은 음운부(phonological component)의 형태적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곧 동반의 크기는 감각운동 체계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²⁶각주 17에서 언급하였듯이 Chomsky(2001b)에서는 EPP 자질을 OCC 자질로 부르고 있다. OCC 자질에 대해서 Chomsky(2001b:11)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 (i) "The extra edge position [= Spec position] in α required by internal Merge is optional, and has no theta role. Assuming options to be determined in LEX, the head H of α must have a feature that makes this position available: an EPP-feature in standard terminology; from another point of view, the feature OCC that means "I must be an occurrence of some β ." Optimally, OCC should be available only when necessary: that is, when it contributes to an outcome at SEM that is not otherwise expressible ..."

참고로, β 의 현시(顯示 occurrence)라는 개념은 지표(index)를 배제한 연쇄 개념에서 '흔적'(trace)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β 의 자매(sister)를 의미한다(Chomsky 2000, 2001a, b). OCC 및 EPP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

- c. T의 파이 자질([person] 자질 포함)은 비해석성 자질이다.
- d. 비해석성 자질은 (강)국면을 단위로 하는 순환 주기 내에 정가되어 사라져야 한다.
- e. 비해석성 파이 자질들의 정가/삭제는 탐침-목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f. 탐침-목표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는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
- g. 비해석성 자질의 정가/삭제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최대한 그리고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위의 요약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일치와 이동은 독립적인 별개의 작용이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증거로 사용된 (2)((26)에 반박)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자.

(26) There seems [_{TP} *t* to be someone in the backyard]

우선 (26)의 도출을 위해 다음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보자.²⁷⁾

(27) T_{def}-to be someone in the backyard

[*u* per] [φ]
<EPP> [*u* Cas]

여기서 일단 T_{def}[per]과 *someone*[φ]은 탐침-목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일치 작용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데 T_{def}는 EPP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5g)에 따라 *someone*의 전치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어열 집합(lexical array: LA)에 허사 *there*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경제성 원리에 따라 *someone*의 이동보다는 *there*의 병합이 우선한다.²⁸⁾

의는 박승혁(2001b)에서 찾아볼 수 있다.

²⁷Chomsky(1995, 2000, 2001a, b)의 일반적인 가정을 따라 *someone*에는 부분격(partitive Case)이 없다고 본다. 부분격 이론에 대해서는 Belletti (1988), Lasnik(1995) 등을 보라.

²⁸이것이 경제성 원리에서 도출되는 소위 “병합 우선”(Merge-over-Move: MoM) 선호 원칙이다(Chomsky 2000, 2001a). MoM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

- (28) there T_{def}-to be someone in the backyard
 [u per] [u per] [∅]
 <EPP> [u Cas]

이와 같이 *there*가 병합되면 T_{def}의 EPP 자질은 충족된다.²⁹⁾
 이어서 연산이 계속되어 다음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자.

- (29) T seem [there T_{def}-to be someone in the backyard]
 [u ∅] [u per] [∅]
 <EPP> [u Cas]

이 구조에서는 T의 [u ∅]가 탐침이 되어 자신과 조화(Match)하는 요소를 탐색하게 되는데 국부성 조건(또는 최소 탐색 minimal search)에 따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활성적인 목표는 *there*[per]이다. 따라서 양자는 탐침-목표 관계를 맺게 되며 동시에 T의 EPP 자질의 충족을 위해 *there*가 [Spec, T] 위치로 인상하게 된다.

해서는 Castillo 외(2000), Groat(1999) 등을 참고하라.

²⁹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T_{def}가 어열 집합 LA에 있는 허사 *there*를 어떻게 탐색하느냐 하는 것이다. Chomsky (2000, 2001a, b)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주 22에서 언급한 순환 조건(Chomsky 2000:132)에 숨어 있는 의도로 짐작해 보면 T_{def}[per]가 선택자(selector)로서 LA의 *there*를 선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T_{def}[per]-*there*[per]의 관계는 일종의 탐침-목표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치 작용에서뿐만 아니라 (순수) 병합 작용에서도 일종의 탐침-목표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경우 T_{def}의 [person] 자질은 일종의 탐침이므로 *there*[per]의 병합으로 삭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목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there*의 비해석성 자질 [person](Chomsky 2000:128)은 탐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T_{def}의 파이 자질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삭제되지 않고(Chomsky 2000:124) 그대로 남아 계속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Chomsky(2000:128)의 논의에 따르면 비해석성 자질의 삭제는 일치 작용에 의한 것이고 (순수) 병합 작용으로는 형태적 자질의 삭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Chomsky의 논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박승혁(2001a, 2001b)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논항 위치로의 순수(외적) 병합(즉 허사의 병합)에서는 자질 삭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T_{def}[per]<EPP> 자질은 *there*[per]의 병합으로 삭제된다. 그러나 Chomsky(2000:124)의 가정에 따라 *there*[per]는 삭제되지 않는다.

- (30) there T seem [*t* T_{def}-to be someone in the backyard]
 [*u* per] [*u* \varnothing] [\varnothing]
 <EPP> [*u* Cas]

그런데 주절의 T는 파이 자질(일치 자질)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나 *there*의 파이 자질은 [person]뿐이므로 최대화 원리(즉 부분 삭제 불허)에 따라 후자의 [person] 자질은 삭제되지만 전자의 파이 자질은 온전하게 남는다.³⁰⁾ 따라서 T의 [*u* \varnothing]는 다시 탐침이 되어 목표를 탐색하게 되고 결국 *someone*[\varnothing]가 목표가 되어 양자간에 탐침-목표 관계가 성립되어 일치가 일어난다. 그 결과 T의 파이 자질은 삭제되고 동시에 완전한 T의 격특성에 따라 목표를 활성화시켜 주었던 [*u* Cas] 자질의 값이 정해져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모든 비해석성 자질들의 정가/삭제가 이루어지고 (26)의 표현이 도출된다.

6. 결론

일치, EPP 및 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요약된다.³¹⁾

- (31) a. 탐침 자체의 탐색(영탐색 zero search)³²⁾
 b. 목표의 탐색(최소탐색), 조화 및 탐침-목표 관계 형성
 c. 목표의 활성화에 의하여 이동하는 β 의 동반 크기 결정
 d. β 의 [Spec, H]로의 인상

³⁰⁾물론 *there*의 인상으로 T의 EPP는 충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이동은 필요하지 않다.

³¹⁾각주 24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일 (강)국면 내에서는 비해석성 자질들의 삭제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³²⁾연산 작용이 적용되려면 일단 탐침 자체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탐침 자체의 탐색은 영탐색(零探索)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능 범주의 핵 H의 비해석성 자질은 연산 작용에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본다. Collins(2001)의 이론으로 말하면, “로커스”(locus)는 탐색 없이 찾아낼 수 있다(“... the locus is identifiable in the workspace with no search” (Collins 2001:8)).

e. 해당 (강)국면 내에서의 모든 비해석성 자질 정가/삭제

이러한 이동 작용의 실행에서 잘 드러나듯이 (31b, e)가 바로 일치 작용(Agree)이며 (31c)와 (31d)가 각각 동반(Pied-piping)과 (내부) 병합 작용(Merge)이다. 따라서 이동 작용(Move)의 적용은 Chomsky (2000, 2001a)의 가정대로 일치 → 동반 → 병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동 작용의 직접적인 유발자는 H(= T)의 EPP 자질이지만 일치 작용의 적용이 전제되지 않은 이동은 불가능하다. 즉 (31b, e)와 (31c, d)를 별개의 독립적 작용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Chomsky(2000, 2001a)의 이론적 틀 속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서 비록 현재의 일치 이론에서는 연산 작용에서 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일치와 동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결코 일치가 전제되지 않은 이동이란 있을 수 없다. 격자질은 목표를 활성화시켜 연산 작용에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격자질의 정가/삭제는 바로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격자질은 EPP 충족을 위해 이동하는 β 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치 작용 자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이동 작용은 반드시 일치 작용을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일치 작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치시킬 대상을 정할 수 없다. 일치 작용이 없으면 조화가 없고, 조화가 없으면 탐침-목표의 관계 설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목표가 없으면 동반이 없고, 동반이 없으면 전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T의 명시 요소 위치에 아무 것이나 올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음운적 내용을 가진 통사적 대상”이면 아무 것이나 올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³³⁾ 그렇다면, 적어도 이동 작용을 연산 작용의 하나로 인정

³³⁾(4)의 주장은 어느 의미에서 지배결속 이론의 α 이동(Move α)과 같은 성격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거의 무제약(constraintless)에 가까운 이러한 연산 작용은 최소주의 이론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Chomsky(2000, 2001a, b)의 이론적 틀에서 본다면 (5)에서 잠깐 언급한 처소구 도치와 인용구 도치에 대한 Collins(1997)의 분석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4를 참조하라.

하는 한, 일치는 이동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승혁. 2000. 이동 작용의 실행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언어》 25, 589-607.
- 박승혁. 2001a. 탐침과 목표. 《신영어영문학》 19, 171-94.
- 박승혁. 2001b. On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ffect in minimalism. 미발표 원고. 이화여자대학교.
- 박승혁. 준비중. A short note on locative inversion. 이화여자대학교.
- Belletti,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 1-34.
- Bresnan, J. 1991. Locative case vs. locative gender. *Proceedings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BLS*, 53-68.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Castillo, J., J. E. Drury, and K. K. Grohmann. 2000. The status of the merge over move preference. M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1-51.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a. Derivation by phase. *Ken Hale: A Life in Language*, In M. Kenstowicz, ed.,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b.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20, 1-28 [first half].
- Collins, C. 1997. *Local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 Collins, C. 2001. Eliminating labels.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20, 1-25 [second half].
- Epstein, S. D. and T. D. Seely. 1999. SPEC-ifying the GF "subject;" eliminating A-Chains and the EPP within a derivational model. Ms. University of Michigan and Eastern Michigan State University.
- Frampton, J. and S. Gutmann. 2000. Agreement is feature sharing. Ms. Northeastern University.
- George, L. and J. Kornfilt. 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 In F. Heny, ed., *Binding and Filter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Groat, E. M. 1999. Raising the case of expletives. In S. D. Epstein and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27-43. Cambridge, Mass.: MIT Press.
- Lasnik, H.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3, 381-405.
- Lee, H. B. 1999a. Agree to move? *Language Research* 35, 523-41.
- Lee, H. B. 1999b. On defining mov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4, 619-37.
- Lee, H. B. 2001. Agreement and movement.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 145-62.
- Martin, R. 1999. Case,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minimalism. In S. D. Epstein and N. Hornstein, ed., *Working Minimalism*, 1-25. Cambridge, Mass.: MIT Press.
- McGinnis, M. J. 1995. Fission as feature movement. Ms. MIT.
- Pesetsky, D. 1989. Language-particular processes and the earliness principle. Ms. MIT.

박승혁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120-750

전화번호: 02) 3277-2171

E-mail: shpark@ewha.ac.kr

접수일자: 2001. 10. 18.

게재결정: 2001. 11. 30.